

갈라디아서 장별 요점정리

1강. 갈라디아서 서론(교재 1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열매다(행 13-14장).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 본서는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인사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다. 그만큼 본서를 기록할 당시의 바울의 심경이 불편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위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음진리를 향한 사도의 거룩한 열망과 복음 전파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의 진지한 책임을 보게 한다.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해있었을까?

1. 갈라디아 교회의 탄생(행 13-14장)
2.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4)
3. 본서를 기록한 목적(#3)

2강. 1장 다른 복음은 없나니(교재 2-3과)

바울은 “A가 아니라 B”라는 반제적(antithetical) 틀 속에서 자신의 복음을 논증한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사도가 전한 복음’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울복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

1. 사도직의 기원(1-5절)
2. 다른 복음은 없다(6-10절)
3. 바울복음의 기원(11-24절)

3강. 2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교재 4-5과)

바울은 2장 후반(11-21절)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적 진술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진술한다.

1. 2차 예루살렘방문(1-10절)
2. 게바의 면책사건(11-14절)
3. 이신칭의의 복음(15-21절)

4강. 3장(1-14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교재 6과-8과)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칭의가 그의 할례나 율법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복음)을 믿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인들을 속량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었다.

1. 어떻게 그들은 성령을 받았는가(1-5절)
2. 어떻게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는가(6-9절)
3. 무엇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였는가(10-14절)

5강. 3장(15-29절) 율법은 무엇이냐(교재 9-10과)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1. 율법과 복음, 무엇이 먼저인가(15-18절)
2. 왜 율법을 주셨는가(19-25절)
3. 칭의의 결과(26-29절)

6강. 4장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교재 11-13과)

4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후손)가 되고 미래의 상속자가 된다”는 3장의 결론에 이어서, 비록 상속자라할지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살이의 비유(1-11절)와 두 아들의 비유(21-31절)를 통해 율법의 한계와 그 무능함을 드러낸다. 동시에 율법과 성령의 대조를 통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되는 복음(약속)의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을 천명한다.

1. 종살이 비유(1-11절)
2. 그리스도의 형상(12-20절)
3. 두 아들의 비유(21-31절)

7강. 5장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교재 14-16과)

5-6장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교회 공동체의 실천 윤리를 다룬다. 먼저 5장에서는 복음으로 의롭게된 신자들에게 율무가 될 수 있는 율법의 다섯가지 폐단을 다룬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사로잡고(1-2절), 짐을 지우고(3절), 그리스도와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4-6절), 진리의 순종을 방해하고(7-10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11-12절) 무서운 율법주의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된 자유는 마음대로 행하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는 ‘죄로부터의 자유’(13-15절)다. 그러므로 육신을 억제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한다

1. 자유로의 부르심(1-6절)
2. 사랑으로의 부르심(7-15절)
3. 순종으로의 부르심(16-26절)

8강. 6장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교재 17-19과)

6장에서의 신자의 자유는 5장의 성결과 함께 세상에 대한 책임과 윤리를 포함한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다. 마지막 맺음말과 함께 평강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기원한다.

1. 서로 짐을 지기(1-5절)
2. 심는 대로 거두기(6-10절)
3. 십자가만을 자랑하기(11-18절)

후기:

갈라디아서 강의는 전체 8강으로 진행된다. 각 강의를 세 파트로 나뉜다.

각 강의를 파워포인트(ppt)로 만든다면, 교재에 있는 목상과 해설의 질문들을 각 강의 포인트로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서의 “목상과 해설편”을 참조하라.